

#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결과

보수교육

##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

글 박숙미(socialworker@welfare.net)



2006년 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 기초실태조사 결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언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이고 자기계발에 적절한 교육제공'이 처우개선 뒤를 이으며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이는 2000년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에서 교육훈련을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외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차이로 보류될 위기에 놓여 있다. 내년 2월 임시회의에서 상정,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를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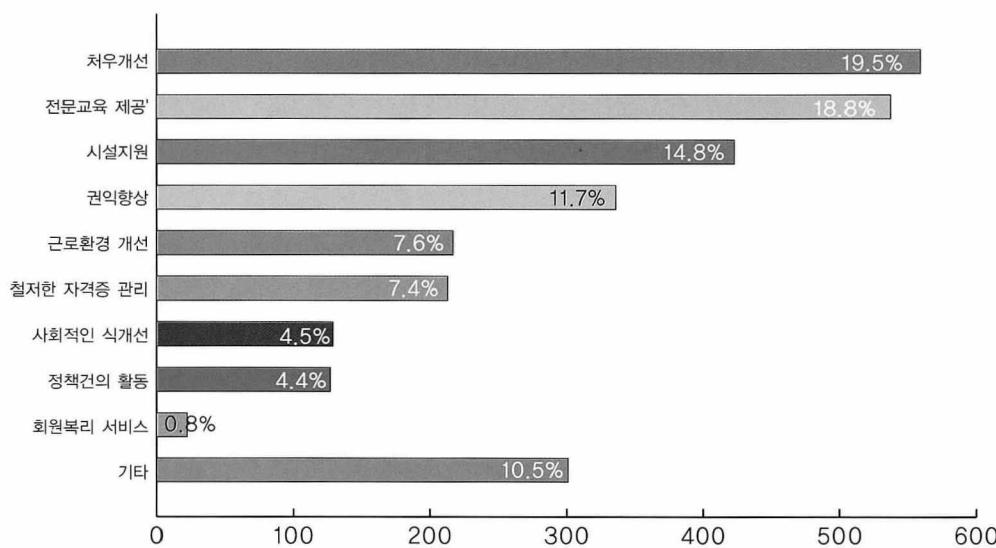
16만 사회복지사들의 단합된 힘만이 보수교육 법제화라는 사회복지사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6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보수교육 법제화에 대해서는 여야의 모든 법안심사 소위원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법제화 법안과 함께 상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외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정당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두 법안내용이 모두 보류될 가능성에 큰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16만 사회복지사와 함께 '보수교육 법제화 관련 개정법안'의 '사외 공익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과의 분리 심의 및 의결을 촉

2006년 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 기초실태조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언하는 내용



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그 시작으로 10월 31일부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수교육 법제화 관련 법안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공익이사제 법안과의 별도 분리 심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게시판 등에 개진하였다.

여기에는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여 법안 분리 심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동희 의료사회복지사는 정화원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의 최전방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물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것 보다 처우면에서 다소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전문직과의 긴밀한 유기관계가 밀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타전문직의 경우 보수교육이 필수로 되어 있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 제고에 크나큰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황규인 사회복지사도 “직원의 질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는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에 보수교육 체계가 없다는 것은 전문직이라는 사회복지사와 국가에서 인정받은 국가자격증에 대한 질적 저하를 증명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만 한다”고 보수교육 법제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승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행복증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대학교육만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계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낮은 처우속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며 최前线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법제화위한 하나된 목소리 높여야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액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사회복지사들은 소극적이다. 타 분야의 경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전국에서 하나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뭉치는데 사회복지사의 경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힘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장에서는 보수교육 법제화 관련 법안심사소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보수교육 법제화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보수교육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정당간의 견해차이로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임시회의에서 상정되어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의 염원인 보수교육 법제화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를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단합된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 보수교육 법제화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 중 발췌

Back Forward Stop Refresh Home AutoFill Print Mail

Live Home Page Apple iTools Apple Support Apple Store Microsoft MacTopia MSN Office for Macintosh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법안 심의 통과를 위해 애써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자신을 희생해 일한다는 사회의 인식을 달리해야 함은 물론 졸업후에도 책임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수교육 법안 심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값진 역할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법안 심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시는 만큼, 저희를 비롯한 16만명의 사회복지사들도 의원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한 직원 33명은 광명시지역사회복지와 특히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실무관련 수퍼비전을 활용한 업무전달체계로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일동

**사회복지사의 꿈**

현재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학기라 취업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영망이라고 합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이유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에 온 마음을 담아 공감합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지지**

복지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 및 인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대되는 인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개입기법 및 기술의 보수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요한 자기결정권과 지식, 실천기술,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하는데 “보수교육 법안” 통과는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법안 심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시는 만큼, 저희 16만 사회복지사들은 한 마음으로 보수교육 법안 통과를 지지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수교육 실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Internet zone